

# 코로나는 왜 사회적 약자들에 더 가혹했나

##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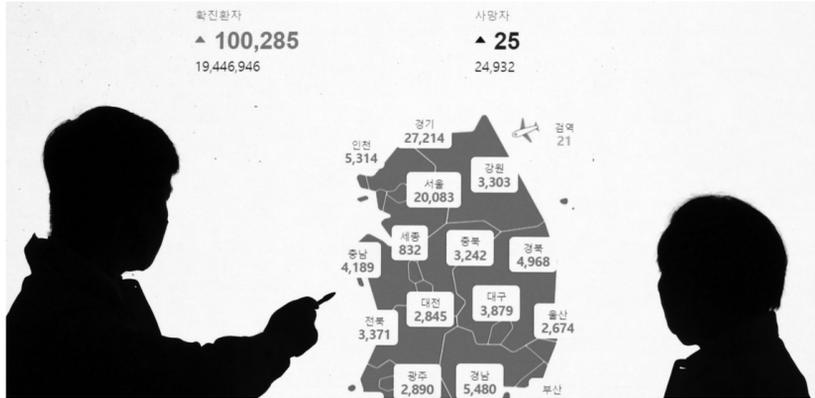
김승섭의 지음

#코로나 유행 초기, 마스크 가격이 경총 뛰고 품귀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전국 각 지자체들은 주민들에게 가구단위로 마스크를 나눠주었다. 어느 집에서 마스크를 세어보니 한 사람분이 부족했다. 그 집 시어머니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 "머느리가 외국인(영주권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이어서 빠졌다"고 답했다.

#코로나 대유행 때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년노동자들은 방호복을 입고 중환자실을 청소하거나 다양한 폐기물을 수거했다. 그렇게 몇 시간 일하다 보면 땀범벅이 되지만 맘 편히 쉬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휴게실이 폐쇄돼 버렸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청소하는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

새 책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는 성공적이라는 'K-방역'의 이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여성·아동·장애인·비정규직·이주민)의 삶에 주목한다.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기획으로 5명(김사강·김새롬·김지환·김희진·변재원)의 연구자들은 오랜 시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해온 현장활동가 37명을 인터뷰를 하며, 한국사회가 경험한 코로나 19 팬데믹을 취약계층의 시좌(사물을 보는 자리)에서 분석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재난이 차별을 만났을 때'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에서 저자들은 "재난 상황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구조해야 하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을 마주한 우리 사회에서 이 상처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재생산되고 증폭됐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확진자 수를 체크하는 관계자. <연합뉴스>

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 대가는 어떠했는가?"고 묻는다. 김승섭 교수는 지난 3년의 시간을 '성공적인 방역'으로만 기억하는 일은 위험하다며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그러한 방식의 기억은 지난 3년 동안 각자의 사회적 거리에서 팬데믹을 차별적으로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위협을 가장 먼저 자신의 몸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사회가 배우고 변화해야 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주민을 비롯해 여성·아동·장애인·비정규직들이 감내해야 했던 차별은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주민은 공동체의 일원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장애인 중

심의 방역정책은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마땅한 지원책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가는 '팬데믹시기 장애인 건강 취약성은 최우선적인 지원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새 책 'K-방역 백서'에 실리지 못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보건정책 입안자와 독자들은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에 직면하기 전에 한국 사회가 보완하고, 고쳐나가야 할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명의 저자는 "기록은 현실에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통찰을 간직한 이야기로 만들어져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틀림 없이 다시 찾아오는 감염병 재난에서 '재난 불평등'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사회 불평등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한다.

<동아시아·2만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전 세계 28개국에서 번역 출간된 전설의 프로듀서 리 루빈의 첫 책. 그는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든 앨범을 프로듀싱했으며 그래미 어워드를 받거나 노미네이트 된 경력이 있다. 책에서는 저자가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며 삶의 지혜를 축적한 경험을 토대 삼아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조언한다. 저자에 따르면 인간의 창조적 삶은 존재의 방식 자체부터 창조적이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술가의 존재 방식과 창조성의 원천에 대해서까지 탐구를 이어 나간다. <코리북스·1만9800원>

▲미래는 허망을 한다=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강혜빈의 시집. 전작 '밤의 팔레트'에 이어 탁월한 색깔과 시어를 구사한다는 평을 받으며 이번 시집으로 돌아왔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SF세계,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마음껏 성찰하는 언어들 담겨 있다. 시인은 인류세를 앞서 경험한 선각자로서, 고통을 건너가는 방식을 시를 통해 성찰한다.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울게 되는 한국사=일제 식민지배부터 강화도조약, 아관파천, 간도 대학살까지 수많은 수난기를 집중한 한국사를 기록했다. 저자는 위기 속에서 선조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성찰한다. 나아가 근대사의 굵직한 사건 뿐만 아니라 4.3사건, 여순사건, 8월 종파 사건, 4.19와 같



이 현대사 속 파장이 큰 사건들을 조망한다. 역사자 영웅과 지도자에 의해서도 쓰여지지만,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교훈을 남긴다. <빅픽사·1만7800원>

▲프리위더=흑인노예 호머의 이야기를 그리는 모험기. 성장기 청소년들은 모험과 용기, 사랑, 우정 가득한 이야기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작품 속 비밀의 마을 '프리위더'는 열두 살 소년 호머가 노예농장을 탈출해 도달한 곳이다. 이곳에서 자유를 만끽하지만 곧 사람들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한다. 책에는 프리위더 친구들과 함께 고향을 구하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밝은미래·1만75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뿌기랑 나랑=반려동물은 처음 키우게 된 진이와 거북이 뿌기의 사랑스러운 이야기. 반려동물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뿌기와 진이는 같이 목욕도 하고 그림책도 읽고 간식도 먹는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와중, 뿌기의 수조를 청소하는 일이 귀찮아진 진이. 귀찮고 힘들지만 뿌기를 직접 돌보는 진이의 모습은 어린이들에게 책임감의 가치를 가르쳐준다. <보라빛소어린이·1만5500원>

▲어찌씨가 킷킷킷='부사'를 중심으로 품사의 활용을 쉽게 전달하는 동시집. 마음과 감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부사 '어찌씨'와 동시 세계를 여행한다. '세상

에서 가장', '역수로 많이', '최고로', '아주아주' 등 여러 부사들을 담은 시편은 아이들을 동심으로 인도한다. 총 51편의 동시 수록, 그림도 곁들여 재미를 더한다. <뜨인돌어린이·1만3000원>

▲깜짝깜짝 아옹이 모험 이야기=상상하기그림책 시리즈 3번, 처음으로 집 밖으로 떠난 고양이와 겁많은 모슴과 멋진 바다, 구름 토끼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삽화를 통해 펼쳐진다. 털을 세우는 고양이부터 못된 괴물, 땅속 요정과 심술쟁이 마녀의 모습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책에 포함되어 있는 QR코드로 노래까지 들을 수 있다. <노란상상·1만8000원>

# 아이히만은 아우슈비츠 죽음의 고통 이식 받으면 반성할까

##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장강명 지음

나치 전범 아들 프 아이히만은 한나 아렌트의 '에루살렘의 아이히만'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자신의 죄를 부인했던 그가 만약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기억을 이식 받고 고통을 경험한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반성할까? ('알래스카의 아이히만') 자신들의 사랑의 앞날을 전망하는 '데이터 예측 열'이 암울한 미래를 예고할 때 사랑에 빠진 두 남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데이터 시대의 사랑') 타인의 기억을 체험하는 기계, 염록체 이식 수술, 육체 부활 장치, 인간 관계 예측 분석 앱. 장강명이 신작 소설집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펼쳐 보이는

세상은 흥미롭다. 신문기자로 일하다 2011년 '표백'으로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는 이미 1990년대 '과학동아' 등에 SF 단편과 칼럼을 게재하고 월간 SF 웹진을 창간해 운영하는 등 SF에 많은 관심을 쏟아왔다. 저자는 이번 소설집의 장르를 'STS(Science, Technology Society) SF' 장르로 규정했다. STS는 과학과 기술이 사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탐구하는 학문 분야다. 작가는 '당대 인간의 삶과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해왔다. 책에 실린 7편의 작품 중 4편은 2019년에 펴낸 '지금까지 사소한 초능력'에 실린 작품으로 STS의 관점에서 개작해 실었다. 심훈문학대상 수상작인 표제작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은 눈앞의 풍경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편집해서 보여주는 증강현실 기술 '유평터'가 상용화된 근미래를 배경으로 '증강현실 규제법'에서 벗어난 바다 위 크루즈선에서 생활하는 유평터 중독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일본의 권위있는 SF 문학상인 성운상 해외단편 부문 후보작인 '알래스카의 아이히만'은 타인의 기억을 주입 받을 수 있는 '체험 기계'가 발명됨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다룬다. 철학자이자 인지 과학자인 대니얼 C. 데닛이 쓴 콩트 '나는 어디에 있는가'에서 영향을 받은 '당신은 뜨거운 별'은 섭씨 400도의 행성 금성에서 고군분투하는 과학자가 등장한다. 거대 탄산음료 회사는 우주 파견 과학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몸과 머리를 분리하는 생체 기술을 개발하고, 몸을 지구에 두고 온 주인공은 회사의 비윤리적인 비밀을 알게된 후 탈출을 꾀한다. '사이보그의 글쓰기'는 소설 속 독자 '장강명'이 슬럼프를 겪으며 얻은 우울증을 떨치기 위해 플라즈마 헤어밴드를 착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아스타틴'에서는 목성과 토성권에서 우주 사회를 이룩한 전체 과학자 아스타틴의 장대한 우주 활극이 펼쳐진다. <문학동네·1만7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